

2020, 11, 24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6454-4870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News

KB-신한 '친환경-사회공헌 금융' 선점 경쟁

동아일보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미래 어젠다 각축전을 벌여... 'ESG'경영으로 전장을 확장....ESG를 투자종목의 일부가 아닌 경영전략의 핵심 가치로...

"결국은 금융이 ESG를 강조해야 모든 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ESG 의제를 선점해야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銀, 하반기도 부동산 매각 분주… '현금 확보' 박차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자체 보유중인 '유휴 부동산'을 잇달아 팔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은행들이 매각하는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영업점이 있었던 자리"... "새로운 곳으로 꾸미기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현금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 → '신고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피해 발생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차기 은행연합회장 내정

한국일보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NH농현금융지주 회장이 내정... 은행연합회는 김 회장을 만장일치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혀...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나 떨고 있니? … 삼성생명, 금감원 제재심에 '초긴장'

머니S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사업에 큰 타격...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첨예한 대립을 예상...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방이 제제심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쟁점...

코로나에 '나이롱 환자' 줄어...車보험 손해율 개선

뉴시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감소세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 대인배상 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금감원 '옵티머스 분쟁조정' 고심…라임 보단 DLF처럼

데일리안

금감원은 옵티머스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금감원 내부적으론 우선 배상하는 사전정산 방식을 선호...

"옵티머스 배상 결정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이 계약을 취소할 만큼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라지는데 판단하기 어려울 것"

증권사 '빚투' 금리 기준 바뀐다는데…실효성은 얼마나?

머니투데이

증권사의 신용융자금리 산정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 우려... 증권사의 자금 조달 구조상 금리 인하 어려워...

"조달금리가 장기와 단기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바뀌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시차 등이 있어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